

제약기반문법에 의한 한국어 연어분석

이해윤 (한국외대)

1. 서론

- (1) (a) 밥을/과자를/약을 먹다
- (b) 겹을 먹다/육을 먹다/나이를 먹다/뇌물을 먹다
- (c) 미역국을 먹다/콩밥을 먹다/물 먹다

위 예문들은 표층적으로 보면 동사 ‘먹다’와 명사 간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단위들간의 결합강도를 보면 차이가 난다. 예문 (1)(a)의 경우, 食用가능한 대상이라는 의미론적 계열관계를 갖는 임의의 어휘들이 목적어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1)(b)의 경우, 목적어로 나타나는 ‘육, 나이, 겹, 뇌물’ 등의 어휘들이 어떤 계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육’이라는 명사와 ‘먹다’라는 어휘 간에 맺고 있는 제한적인 결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c)의 경우는 통사적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두 어휘들 간의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극단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문 (1)(b)와 같은 제한적 어휘결합 구문, 즉 연어 (collocation)를 제약기반 문법이론 (Constraint-based Phrase Structure Grammar)에 의하여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2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연어의 정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3 절에서는 제약기반문법 하에의 기존 분석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절에서는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논하기로 한다.

2. 연어: ‘겹을 먹다’

Firth (1957)에서 처음 도입된 ‘연어’의 개념은 그간 연구영역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언어학 영역에서의 연구로는 Halliday (1966), Cruse (2000), Mel’cuk (1996), 홍재성 (1995), 김진해 (2000), 임홍빈 (2002) 등이 있고, 코퍼스 기반의 통계/전산적 언어처리분야에서는 Sinclair (1991), Smadja (1993), 윤준태 (1997), 신호필 (2006) 등을 들 수 있다.

언어학 영역 내에서 연어 개념정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들로서 어휘 선택 제약과 의미 해석의 투명성 두 개념들을 들 수 있다 (홍재성 1995, 임홍빈 2002, 임근석 2002).¹

¹ 이외에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연어정의에 사용되어 왔다 (임유종 2005): 격률변화, 구조 변형, 선택의 단일 방향성, 번역 등.

2.1. 어휘 선택 제약

먼저, 어휘 선택 제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임홍빈 (2002)에서는 유사어/반의어의 대치여부에 따라 자유결합과 연어구성을 구분하고 있다.

- (2) (a) 결정을 내리다/*결정을 하강시키다/*결정을 올리다
(b) 짐을 내리다/짐을 하강시키다/짐을 올리다

그러나 임유중 (2005)에서는 반의어에 의한 연어구성 판단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사어대치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즉, 연어구성은 그 일부 요소를 유사어로 대치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²

- (3) (a) 겁/*두려움/*공포/양심/적심을 먹다
(b) 겁을 먹다/*처먹는다/*드신다/*잡수신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연어구성에서 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어휘의 의미 보다는 어휘형태가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본다 (임홍빈 2002, 홍재성 1995 등).

2.2. 의미해석의 투명성

다음으로 의미해석의 투명성을 논의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구의 의미는 합성성 원리를 준수한다. 이와는 달리 관용구는 이러한 합성성 원리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낙방하다’ 의미의 예문 (1)(c)에서 ‘미역국’과 ‘먹다’의 전형적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연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예문 (1)(b)의 ‘육을 먹다’에서 ‘육’의 의미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N-V 연어 구성에 있어서 명사의 의미가 투명하고, 동사의 의미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미의 투명성/불투명성’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우리말 큰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먹다’의 의의들이다.

- (4) (a)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
(b) 재물 따위를 제 것으로 하여 가지거나 차지하다.
(c) 등급이나 점수를 따다.
(d)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² 그러나 다음 예에서와 같이 명사+동사 연어구성에 있어서 동사의 대치가 명사의 대치보다도 더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유중 2005).

- (i) 이별/작별/*결별/*별리/*헤어짐을 고향하다.
(ii) 관례를 지키다/*수호하다/*보존하다/*간직하다

- (e) 액체를 빨아들이다.
- (f) 매 따위를 맞다.
- (g) 어떤 나이에 이르다.
- (h)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품다.
- (i) 욕, 꾸지람, 편견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이정식 (2003)에서는 다의어를 기본의미에 해당하는 최초의미가 확장된 경우로 보고, ‘먹다’의 경우 (4)(a)를 최초의미로 설정한다. 이와는 달리 (4)(a)~(i) 각각을 투명한 의미로 볼 경우, 우리는 한 어휘의 의미들을 모두 열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관용적 의미와의 구별문제 등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정식 (2003)에 따라 다의어의 경우 원형적 의미만을 투명한 의미로 간주하고자 한다.

임유중 (2006)에서는 앞서 논의한 두 요소, ‘어휘선택계약’과 ‘의미해석 투명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어구성을 세분화하고 있다.

<표 1>

구분 기준	자유구성	연어			관용표현
		가운을 입다	접을 먹다	거래를 트다	
결합계약	A	B	B	C	C
의미특성	a	a	b	b	c/d

- A: 어휘적 유사어 대치검증에 제약이 없음
- B: 어휘적 유사어 대치검증에 제약이 있음
- C: 어휘적 유사어 대치검증에 제약이 심함

- a: 투명 + 투명
- b: 투명 + 불투명
- c: 불투명 + 투명
- d: 불투명 + 불투명

위 분류에 의하면, 본 논문에서 다룬 연어구성 ‘접을 먹다’는 전형적인 연어구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투명한 의미를 지니는 명사 ‘접’이 술어 기능을, 그리고 불투명한 의미를 지니는 동사 ‘먹다’가 논항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임홍빈 2002, 이동혁 2003). 그리고 이런 의미선택을 통사선택으로 확장시켜 Melcuk (1996) 등에서는 명사가 핵으로 기능하고 (연어핵), 동사가 그 보족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연어변).

2.3. 통사적 현상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연어는 자유구성과 비교하여 형태론적, 통사론적 제약을 보인

다.³ 먼저 다음과 같은 통사적 제약을 들 수 있다 (임흥빈 2002).

- (5) (a) *아이가 겉을 먹었고, 나도 _ 먹었다.
(b) *아이가 먹은 겉은 대단했다.
(c) *아이가 겉을 먹었고, 나도 그것을 먹었다.

한국어 연어는 자유구성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생략화, 관계화, 대명사화 등을 거부한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연어를 구성하는 언어핵과 언어변은 일정한 통사범주 내에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언어핵은 언어변의 일정한 영역 내에 어휘적으로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어표현은 그 전체가 나름의 논항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유구성에 나타나는 ‘먹다’에 비해 연어표현에 나타나는 ‘먹다’는 언어핵 ‘겉’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사구를 요구한다. 즉, 연어 ‘겉을 먹다’ 전체가 두 개의 보족어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a) 아이가 호랑이에게 겉을 먹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빵을 먹었다.

그리고 연어표현은 관용구와는 달리 연어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즉,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가 언어핵과 언어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 (7) (a) 아이가 잔뜩 겉을 먹었다.
(b) 아이가 겉을 잔뜩 먹었다.
(8) (a) 그는 이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b) *그는 미역국을 이번 시험에서 먹었다.

3. 기존 분석

제약기반 문법 하에서의 연어에 대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관용구에 대한 분석은 몇몇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관용구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봄으로써 연어분석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한다.

3.1. Erbach & Kren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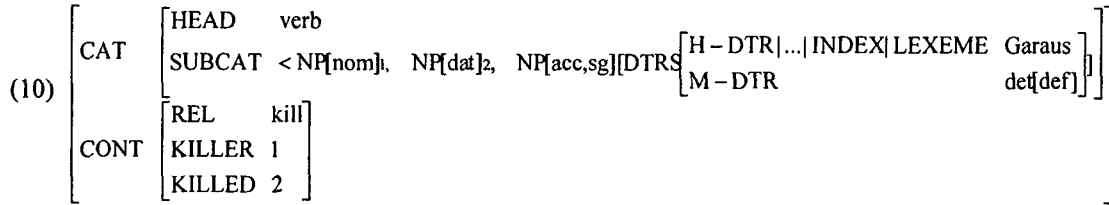
³ 아래의 예들은 연어가 갖는 형태론적 제약들을 보여준다 (임흥빈 2002).

(i) 그 이야기는 귀가 따갑게 *들렸다/들었다.

(ii) 눈물이 핑그르르 *들렸다/들었다.

즉, 일반적으로 연어는 어휘형태들간의 결합이므로 피동 (i)이나, 사동 (ii)을 허용하지 않는다.

- (9) (a) Peter macht Paul den Garaus. “Peter finishes Paul off”
 (b) Der Garaus wird Paul gemacht. “Paul is fin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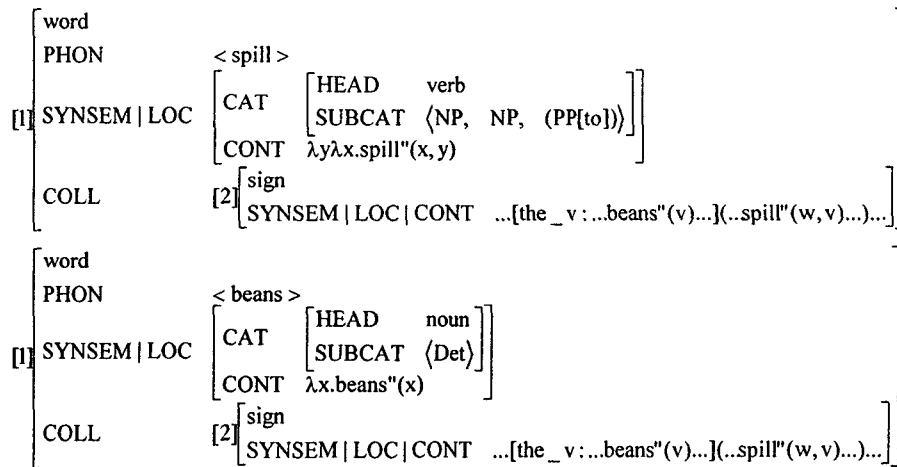


Soehn (2003)에 따르면, 첫째 동사 *machen*은 하위범주화 정보에 따라 여러 어휘항목으로 설정되어 동음이의어로 처리된다. 이는 일반적 직관에 어긋난다. 둘째, 특정 의미를 지닌 요소를 하위범주화 하므로 다른 요소의 개입에 의한 수식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3.2. Sailer (2003)

- (11) (a) Pat spilled the beans. “Pat revealed a secret.”
 (b) The beans were spilled in this article.

(12)



새로운 기재들 (COLL: Context of Lexical Licensing)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론의 각 모듈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3.3. Riehemann (2001)

$$(13) \left[\begin{array}{l} \text{miss_boat_idiom_phrase} \\ \text{C-WORDS} \end{array} \left\{ \begin{array}{l} \text{word} \\ \dots \text{LZT} \left\langle \begin{array}{l} \text{_miss_rel} \\ \text{UND} \end{array} \right\rangle \left[\text{I} \right] \right\rangle \\ \text{i_boat} \\ \dots \text{LZT} \left\langle \begin{array}{l} \text{_i_boat_rel} \\ \text{UND} \end{array} \right\rangle \left[\text{I} \right] \right\rangle \bar{I} \left[\begin{array}{l} \text{word} \\ \dots \text{LZT} \left\langle \text{_boat_rel} \right\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

관용구에 대한 construction 접근법으로서 이 분석에 따르면, 각각의 관용구에 대해 나름의 유형을 설정해야 하므로 어휘부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용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4. 제안

4.1. 가정

언어를 ‘어휘들간의 제한적 결합’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결합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앞서 ‘N-V 언어구성’에 있어서 언어핵/언어변 개념을 도입하여 N이 V를 선택하는 견해들 (Melcuk 1996, 임홍빈 2002 등)을 살펴보았다.⁴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제약기반문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명사들이 동사를 하위범주화한다는 정보를 가정해야 하는 등 문법모형에 큰 부담을 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Cruse (1986: 52-54)에서는 언어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상호 선택적이라고 보고 있고, 임지룡 (1992: 202)에서도 언어를 ‘상호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관계’로 본다.

이러한 상호선택 개념은 ‘생성 어휘부 이론 (Generative Lexicon)’에서 다의성 설명에 사용되고 있다 (Pustejovsky 1995). 생성 어휘부 이론은 의미정보를 표상하는 풍부한 장치들을 설정하고 있다. 술어의 논항 정보는 ‘논항구조’에, 그리고 술어의 상적인 특성들은 ‘사건구조’에 표시된다. 또한 논항구조와 사건구조를 연결시켜 술어의 구체적인 의미특성을 표현하는 ‘특질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생성 어휘론 이론에서 다의어 설명방식을 살펴보자.

(14) (a) John baked the potato.

(b) John baked the cake.

예문 (14)에서 동사 *bake*는 ‘상태변화’ (a), 그리고 ‘창조’ (b)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의적 동사

⁴ 김진해 (2000)에서는 언어를 ‘전제적 언어’와 ‘관습적 언어’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동사가 그리고 후자의 경우 명사가 선택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bake*가 특정 문맥에서 어느 한 의의로 해석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co-composition’ 장치가 관련 어휘의미에 일부 작동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Pustejovsky 2000).

(15) (A) The governing verb selects its complement

(B) The complement selects the verb

(C) The composition of the qualia structures of the two results in a derived sense of the verb at the VP level

예문 (14)(b)의 경우, 각각의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동사 *bake*의 경우 논항구조에 선택되는 보족어 정보가 들어있으며 ((15)(A)), 명사 *cake*의 경우 특질구조 내에 관련 술어 정보가 들어있어서 ((15)(B)), 동사구 *bake a cake*가 ((15)(c))에 의해 단일한 의미를 얻게 된다.

(16)

$$(a) \left[\begin{array}{l} \text{bake}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1} = [1] \left[\begin{array}{l} \text{animate_ind} \\ \text{FORMAL} = \text{physobj} \end{array} \right] \\ \text{ARG2} = [2] \left[\begin{array}{l} \text{mass} \\ \text{FORMAL} = \text{physobj}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state_change_lcp} \\ \text{AGENTIVE} = \text{bake_act}(e1, [1],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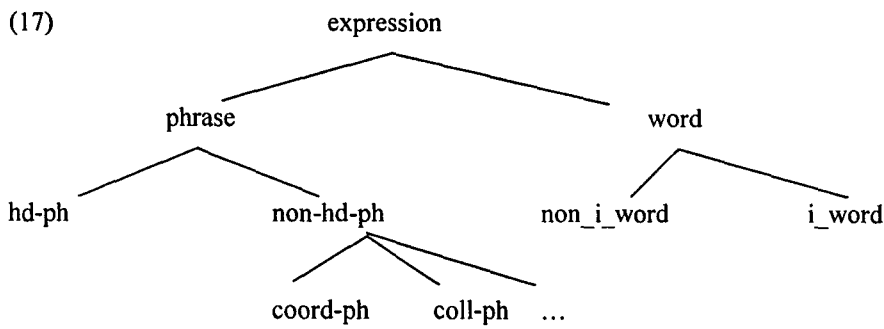
$$(b) \left[\begin{array}{l} \text{cake}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1} = x : \text{food_ind} \\ \text{D-ARG} = y : \text{mass}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CONST} = y \\ \text{FORMAL} = x \\ \text{TELIC} = \text{eat}(e2, z, x) \\ \text{AGENTIVE} = \text{bake_act}(e1, w,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우리는 생성 어휘부 이론의 co-composition 연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약기반문법 하에서 연어 구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동사가 보족어를 선택하는 조건 (A)는 통사부에서 반영한다. 즉 연어변이 연어핵을 하위범주화하도록 한다. 이때, 통사/의미적 정보 뿐만 아니라 음운정보도 함께 선택되는 것으로 한다. 다음 보족어가 동사를 선택하는 조건 (B)는 현재 문법학의 기술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 현재 문법에서 선택정보는 하위범주화 정보로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명사로 실현되는 보족어는 특정 논항을 하위범주화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건은 VP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조건 (C)가 적용되는 의미부에서 함께 만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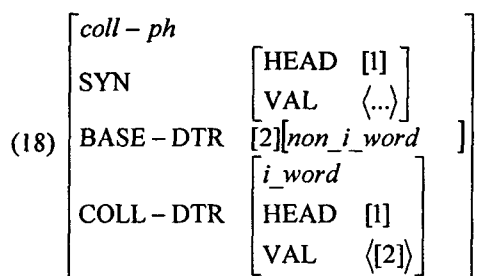
4.2. 통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어구성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핵 head’ 개념을 설정할 수 없다. 자유구성과는 달리 새로운 논항이 추가되거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어구성을 ‘비핵 구’의 일종으로 가정하여, Sag et al. (2003)에 따라 non-hd-ph 유형의 한 하위 유형으로서 coll(ocation)-ph(rase)을 설정하기로 한다.

한편, 연어의 구성요소들은 의미의 투명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즉, 연어핵에는 투명한 의미를 지니는 일반적인 단어가, 그리고 연어변에는 불투명한 의미를 지니는 관용적 단어가 출현한다. 따라서 word 유형을 Riehemann (2001)에 따라 관용적 용법의 단어 유형 *i_word*과 일반 단어 유형 *non_i_word*으로 하위구분한다.



coll-ph 유형은 hd-subj-ph, hd-comp-ph 등의 hd-ph 유형들과는 달리 나름의 고유한 딸 범주들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연어핵에 해당하는 BASE-DTR와 연어변에 해당하는 COLL-DTR를 가정한다. 그리고 이 유형이 갖는 제약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유형 coll-ph는 non-hd-ph의 하위 유형이므로 hd-ph 유형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따르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Head Feature Principle’과 관련하여, 연어의 통사적 핵어 정보는 연어변의 정보를 상속받는다고 본다. 즉 연어는 통사적으로 보면 동사의 투영범주이며, 경어법 일치에 있어서도 연어변이 작용을 한다 (아버지가 집을 *먹었다/먹으셨다). 둘째, ‘Valence Principle’과 관련하여, 연어변이 연어핵을 선택한다. 선택되는 정보는 synsem 유형이 아니라, PHON 정보를 포함하는 word 하위 유형이므로 어휘간의 결합이라는 연어 특성을 반영해준다. 또한 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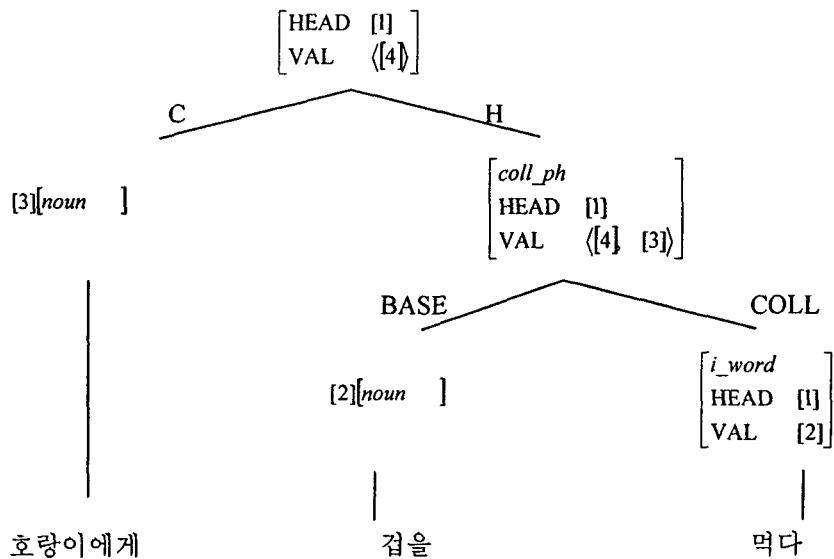
범주의 하위범주화 정보는 언어핵이나 언어변의 정보와는 무관하게 나름의 정보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원거리 이동과 관련하여서도 hd-ph 유형에 적용되는 ‘GAP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언어변으로 나타나는 *i_word* 유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관용구를 처리하는 Riehemann (2001)에 따라, 관용적 단어는 독자적인 표제어로서 사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구를 형성할 경우 그 정보가 디폴트 상속 default inheritance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언어분석에 있어서도 불투명한 의미를 갖는 언어변 *i_word* 유형은 언어구성시 관련되는 *word* 유형과 디폴트 상속에 의해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접을 먹다’ 연어에서 ‘먹다’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9) \begin{bmatrix} i_word \\ CAT|VAL [1] \\ CONT|RELS \langle [i_eat_rel] \rangle \end{bmatrix} \cap \begin{bmatrix} word \\ CAT \begin{bmatrix} HEAD [2] \\ VAL [3] \end{bmatrix} \\ CONT|RELS \langle [eat_rel] \rangle \end{bmatrix} = \begin{bmatrix} i_word \\ CAT \begin{bmatrix} HEAD [2] \\ VAL [1] \end{bmatrix} \\ CONT|RELS \langle [i_eat_rel] \rangle \end{bmatrix}$$

다음은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연어가 보여주는 현상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언어구성이 나름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갖는 예문 (6)(a)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20)



언어 ‘접을 먹다’는 coll-ph 유형 (18)의 제약을 준수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실현시킨다. 여기서 상위 표현 ‘접을 먹다’는 새로운 논항을 요구한다는 하위정보화 정보가 추가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hd-ph 유형을 형성하므로 ‘핵원리’, ‘결합가 원리’ 등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생략화, 관계화, 대명사화를 허용하지 않는 예문 (5)의 경우, 연어변이 PHON 정보를 포함하는 word 유형을 선택하므로 대명사의 선택에 의한, 또는 ‘공백’과의 결합에 의한 연어구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후자 (5)(c)의 경우, GAP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아 공백이 미충전되어 비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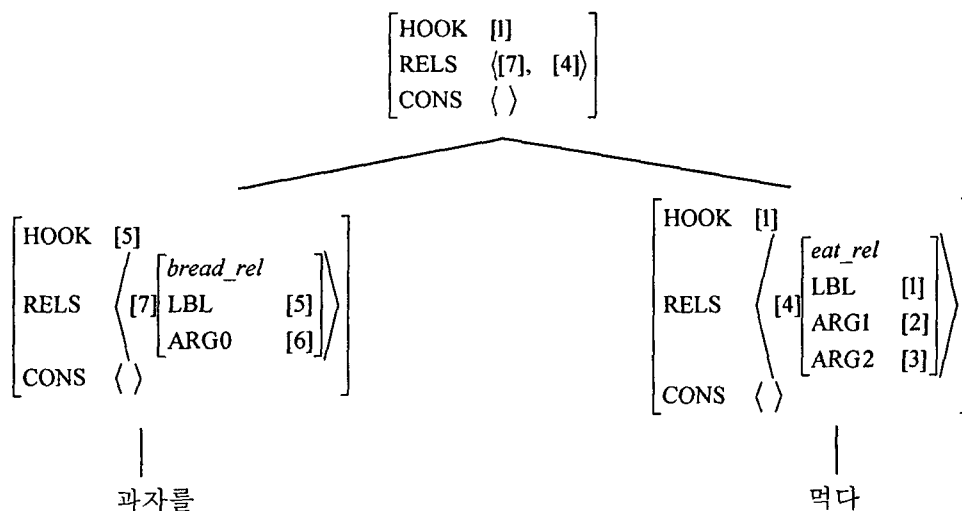
4.3. 의미부

언어의 의미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Copestake (2001), Flickinger (2003)에 제시된 MRS (Minimal Recursive Semantics)를 이용하기로 한다. MRS를 채택한 HPSG의 의미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1) \left[\begin{array}{l} mrs \\ \text{HOOK} \left[\begin{array}{l} \text{GTOP } handle \\ \text{LTOP } [1] \end{array} \right] \\ \text{RELS} \left\langle \begin{array}{l} \text{dog_rel} \\ \text{LBL} [1] \\ \text{ARG0} [2] \end{array} \right\rangle \\ \text{HCONS}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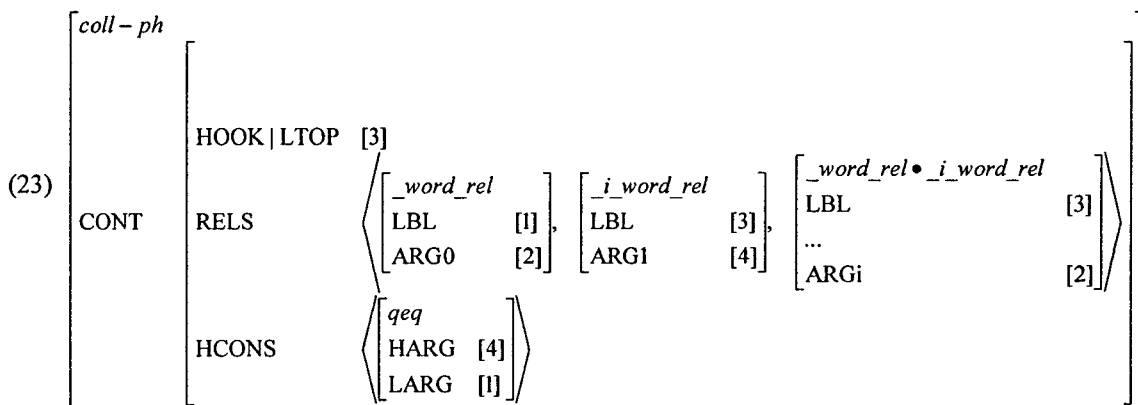
의미부는 HOOK, RELS, HCONS 속성으로 구성되는 mrs 유형으로 표현된다. HOOK 값은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그룹짓는 역할을 하며, RELS는 술어-논항구조의 의미형태들을 목록으로 갖는다. 그리고 HCONS는 필요한 제약들을 표현한다 (Copestake et al. 2001). 이러한 개별 어휘 의미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 의미합성이 일어나 구의 의미를 형성한다. 즉 *hd-comp-ph* 유형과 같이 의미 합성을 준수하는 자유구성의 경우, 전체 구의 HOOK 값은 의미핵의 HOOK 값과 동일하며, 전체 구의 RELS 그리고 HCONS 값은 하위 요소들이 지닌 값들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다음 예를 보자.

(22)



그러나 언어표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투명한 의미를 갖는 언어변으로 인해 합성성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 대신에 동사의 관용적 의미가 명사의 일반적 의미에 더해져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사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고, 명사 의미가 전체 구의 의미를 결정짓는 경동사 구문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에서는 구성성분들 일부만이 관용구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하위 구성성분들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관용구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언어표현의 의미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생성 어휘부 이론의 co-composition 연산에 기대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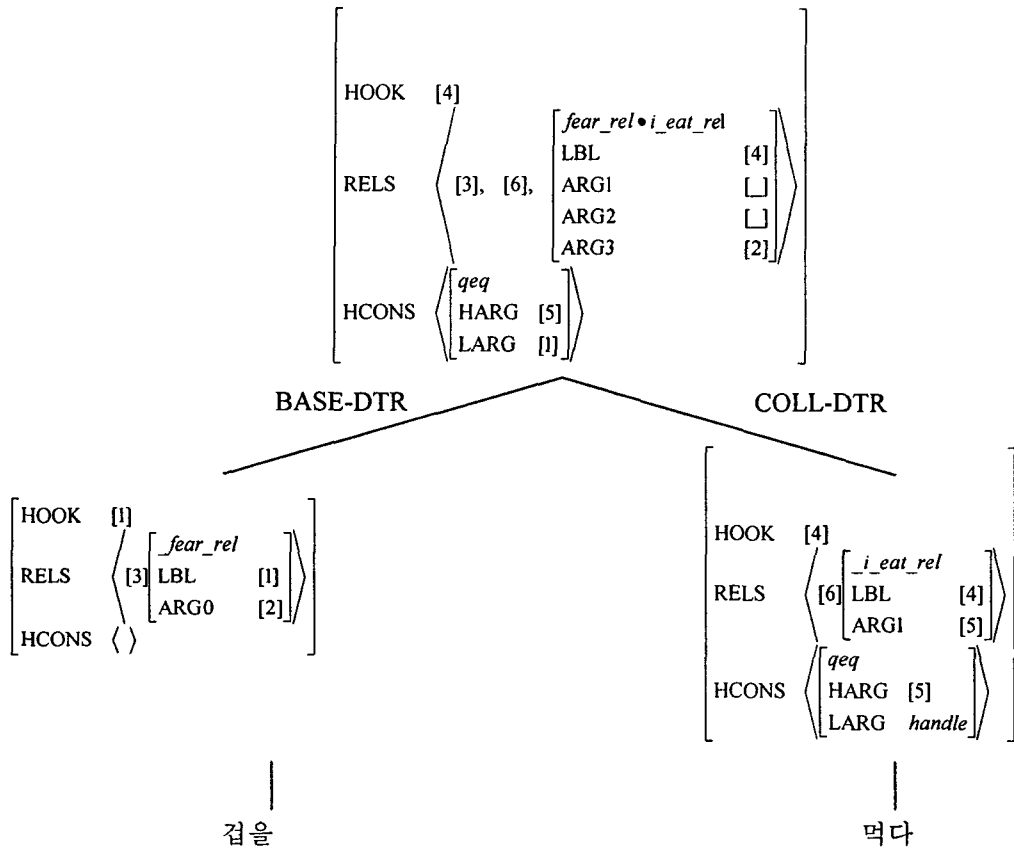
언어구성 전체의 의미는 (15)(C)에 따라 언어핵의 의미와 언어변의 의미가 합성되어 새로이 형성된 의미유형 *word_rel·i_word_rel*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 관용구의 의미 생성방식과는 달리, 이 새로운 의미유형의 내부논항으로 언어핵 의미가 출현한다. 이는 보족어가 술어를 선택한다는 (15)(B)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관용의미를 갖는 언어변은 일종의 결속변항으로 처리된다. 즉, 언어변의 논항은 일반적인 논항처럼 일치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핵에 의해 결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제약 (23)에 의해 언어 ‘접을 먹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⁵ Nunberg et al. (1994)의 ‘decomposable idiom’ vs. ‘non-decomposable idiom’으로 구분할 경우, 언어는 decomposable idiom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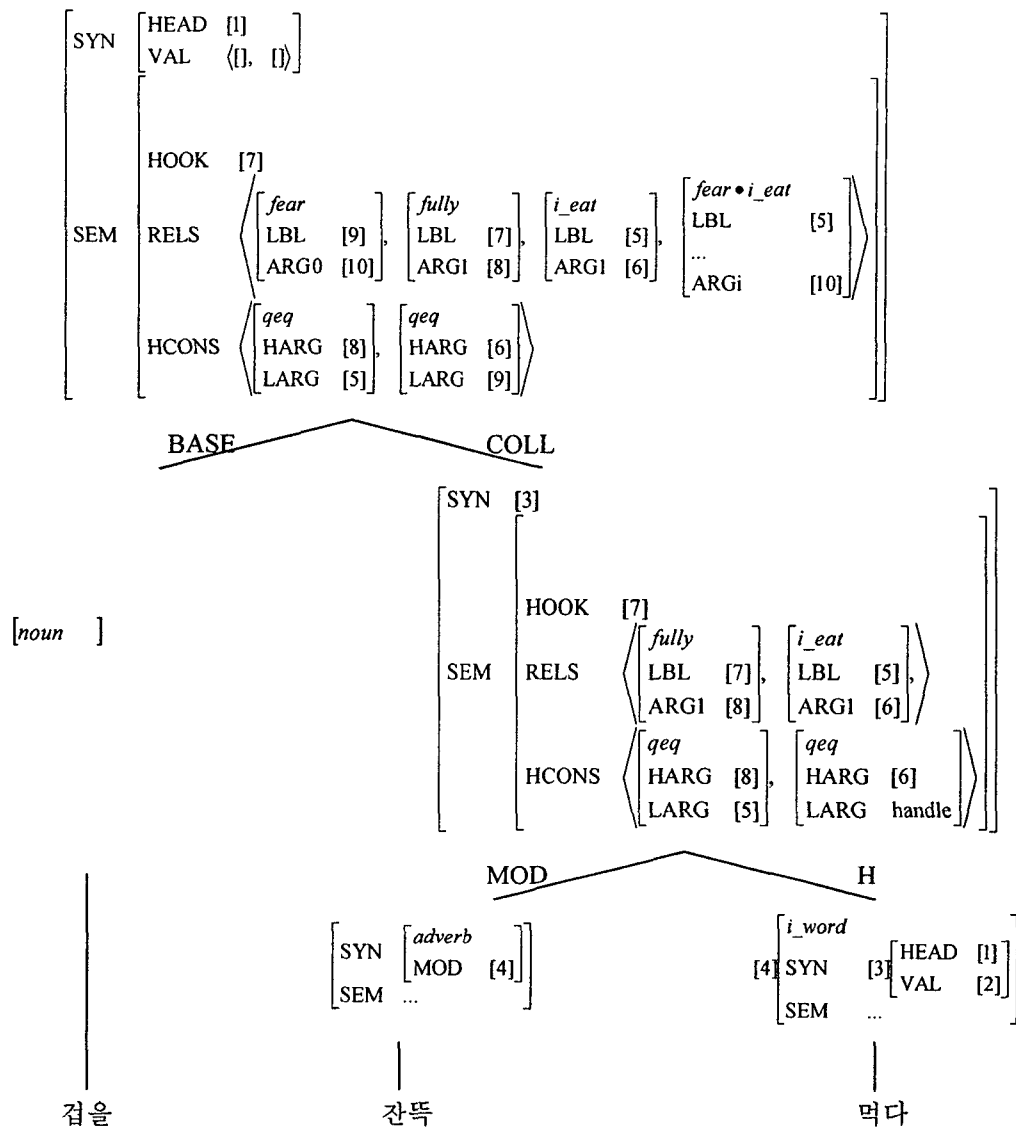
연어핵 ‘겁을’과 연어변 ‘먹다’는 나름의 단위를 형성하여 독자적인 HOOK 값을 갖지만, 연어구성 시 통사적 핵 역할을 하는 연어변의 HOOK 값이 전체 연어의 HOOK 값을 결정한다. 한편, 연어표현의 의미는 연어핵의 의미와 연어변의 의미 합성으로 표현되며 (*fear_rel·i_eat_rel*), 이때 연어핵의 의미는 새로이 생성된 의미 내에 나타난다. 그 외에도 새로이 형성된 연어의미는 나름의 논항들을 요구할 수 있다.

끝으로 수식구가 나타나는 연어구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통사부와 의미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자 한다. 연어 전체 의미의 RELS 값에는 합성된 의미유형 이외에도 연어핵과 연어변의 의미유형이 나타난다. 이로써 다음 예문과 같이 연어핵을 수식하는 구문이나, 연어변을 수식하는 구문의 의미를 처리할 수 있다.

(25) (a) 아이가 호랑이에게 엄청난 겁을 먹었다.

(b) 아이가 호랑이에게 겁을 잔뜩 먹었다.

(26)



위 구조에서 보면, 연어 ‘접을 먹다’는 부사 ‘잔뜩’에 의해 분리되어 출현한다. ‘잔뜩 먹다’는 hd-mod-ph 유형으로서 일반적인 여러 원리들의 적용을 받아 정보를 구성한다.⁶ 여기서 연어변의 의미는 미완성되어 남아있다 ([6] = handle). 다음 단계에서 ‘잔뜩 먹다’는 연어핵 ‘접을’과 결합하여 coll-ph 유형을 형성하여, 미완성된 연어변의 의미가 완성된다 ([6] = [9]). 그리고 coll-ph 유형의 의미부 (23)에 따라 새로운 연어의미가 생성된다.

5. 결론

⁶ 본 논문은 연어구성에 대한 분석이므로 부사와 동사간의 결합에 대한 통사, 의미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진해. 2000. 『언어연구』, 한국문화사.
- 이정식. 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 이동혁. 2003. 언어 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 131-161.
- 임근석. 2002. 현대국어의 어휘적 언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임유중. 2005. 언어의 개념과 범위한정의 제 문제. ms. 서울대학교.
- 임홍빈. 2002.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 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279-410.
- 홍재성. 1995. 어휘함수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사전편찬, 한국학 국제 학술회의 논문집.
- Copestake Ann, Dan Flickinger, Carl Pollard, Ivan Sag. 2001. Minimal Recursion Semantics: An Introduction, *Language and Computation* 1, 1-47.
-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bach, G. & Krenn, B. 1994. Idioms and support verb constructions, in: J. Nerbonne et al. eds.,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LSI Publication.
- Melcuk, I. A. 1996. Lexical Functions: A Tool for the Description of Lexical Relations in a Lexicon, in: Wanner ed.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y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Nunberg, G., I. Sag, T. Wasaw. 1994. Idioms, *Language* 70, 491-538.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IT Press.
- Pustejovsky, J. 2000. Syntagmatic Processes, in: *Handbook of Lexicology and Lexicography*, de Gruyter.
- Riehemann, S. 2001. *A Constructional Approach to Idioms and Word Formation*, Diss., Stanford Univ.
- Sag, I., T. Wasaw, E.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CSLI.
- Sailer, Manfred. 2003. *Combinatorial Semantics and Idiomatic Expressions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Ph.D. Uni. Tuebingen.
- Soehn, J.-P. 2003. Von Geisterhand zu Potte gekommen. Eine Analyse von PPs mit unikalen Komponenten. Magisterarbeit. Uni Tuebingen.